

 <b>건설교통부</b>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 Trust Builder		<b>보도자료</b>		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	
		배포일시	2007. 11. 26(월) / 총 2 매	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	
담당 부서	물류정책팀	담당자	· 팀 장 박종흠, 사무관 김주식 · ☎(02)2110-8219, kjs0219@moct.go.kr		
보도일시		2007년 11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**한·중간 물류분야 협력 강화 및 공동 발전 추구**

- 제3회 한·중 물류협력회의 개최 -

□ 건설교통부는 11월 27일-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교통부와 양국간 물류분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, 트럭복합일관운송 체계(이하 “트럭페리”)의 공동연구를 위해 제3회 한·중 물류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5년부터 중국 교통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양국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, 작년에는 서울에서 제2회 물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.

※ 트럭페리 : 부두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 없이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직접 선박(카페리)에 실어 운송하는 서비스로 화물 상하역 시간, 부두대기시간 등 시간절감 및 항공운송과 비교하여 운송비용 절감이 기대되며, 현재 유럽국가간의 화물운송에 활발히 이용 중

□ 이번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양국간 교역 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류 부문의 우선 과제로서 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표준화와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주제 발표 및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.

- 또한, 트럭페리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추진 상황과 양국간 트럭페리 추진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.
- 특히, 트럭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, 검역, 통관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법제도상 상이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.
- 한·중 양국은 지난 5월부터 시간·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운송서비스로서 트럭페리 공동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, 지난 8월에는 중국 위해에서 양국정부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, 10월에는 관련업계 및 학계가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이다.
- 건설교통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물류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향후 동 회의를 한·중·일 및 동북아의 포괄적인 물류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이번 회의에는 강영일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과 웡맹용 (Weng Meng Yong, 翁孟勇) 중국 교통부 부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여
  - 한국측의 건교부, 해수부, 환경부, 농림부,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와 중국측의 교통부, 외교부, 공안부, 공로과학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.